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1호 [무게 제25630호] 주체106(2017)년 5월 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만리마대진군에서 주체조선근로자들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오늘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7돛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은 나라 천만군민이 4월의 혁명적명절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것처럼 만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시기에 김혁의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편지를 받아 안은것으로 하여 올해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편지를 받아 안은것으로 하여 올해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거창한 시대는 근로자들 모두가 선리마기수들처럼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높은 창조적능력,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불바쳐 투쟁해나갈것을 요구 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창조적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오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지난날 천대만고 억압만연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환골에 안으시고 그들의 정신력을 불리워오며 세계적 변혁의 선봉마사대, 로동당시대를 열어 오시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어주시고 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다져주셨다. 은 나라 방방곡곡의 공방구내림과 노동력집, 과학연구기지들이 어찌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영도의 자욱, 평범한 근로자들이 받아안은 시대의 기쁨,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우리 로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워 주시고 미지와 낮, 붓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것이 경애하는 현수님 이시며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 이어 근로단체들의 대회를 조직해주시어 모든 근로단체조직들을 명실공히 수령의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 주신것이 우리 수령님이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현명한 영도아래로 우리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기 믿을 굳게 믿고 만민을 웃으며 뒹군아가는 자력자강의 무사로, 세계를 압도하는 문명과 번영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는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는 원동력이다.

오늘의 시대는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륜을 현실로 불어우르고 사회주의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대명령이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이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은 우리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최후승리의 전진로를 열어나가는 거창한 창조대전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장구한 혁명투쟁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자력자강, 강고본류의 혁명정신을 체현하였다. 지역자강으로 시대와 고조, 보수주의와 계배주의를 산산이 깎아내리고 사적주의의 전진적의 시대적모습을 창조해온 전진대 근로자들의 고귀한 혁명정신, 불굴의 투쟁기상은 오늘도 출가차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과학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국방부에서 우리 식의 주체무기들이 연이어 개발안정되고 만리마대진군의 분포기정인 강도대정신을 비롯한 시대정신이 창조되어 우리 인민을 만리마대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역시 부여없는 은곳 도전과 영혼한 시련속에서도 인민적 선봉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전진하는 생산적양성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선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모두의 자랑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고, 뜻깊은 올해에 년간계획, 삼년계획회원수자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가 얼마나 앙양되어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연속공격전선 행령의 전진기를 대변영기로서 이어나가는 기적창조의 거인, 시대의 영웅이 되려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드림이다. 당의 무름이러면 전진하는 생산적양성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선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모두의 자랑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고, 뜻깊은 올해에 년간계획, 삼년계획회원수자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가 얼마나 앙양되어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자주적신념과 배방을 그대로 닮고 항일의 연금록탄 정신, 선리마사대의 사사시를 배우며 자라난 주체조선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력자강의 절대불변의 투쟁방식이며 창조본류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것을 비추어 보면, 온갖 적대강력들의 반공위협책들은 지금 극도로 말라가고있다. 적들이 발악하면 우리 수로, 시련과 난관이 겹겹이우려 오고 근로자들이 지닌 주체의 신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다. 현수님의 어떤 제재와 봉쇄도 지역자강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우리 인민, 지역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이 만리마대진군은 우리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적열정을 발휘하여 세기를 추월하는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보람찬 진군이다.

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역적불변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투쟁에서 승리적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것처럼 만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시기에 김혁의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편지를 받아 안은것으로 하여 올해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성실성으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당시 부르는 뜻에서 참된 삶을 찾아서 열일하고 물결대에 탄탄한 운산건설로 로동자 최정준은 청천의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치고있으며 많은 자제와 봉사자를 지원하여 건설자들이 위훈을 떨치도록 고무하였다.

외우도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오대명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로동적성과를 이룩하면서 불심판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성시인민위원회 평성비석공장 로동자 서정일은 온 가족이 성의껏 준비한 후방물자와 자제들을 어머니께 걸려 건설장에 보내주는 미품을 발휘하였다.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만들어 가는 건설자들을 돕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평양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김유미는 후방사업을 총이 크게 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적

시기를 더욱 높여주었다. 열두살된 딸의 중요한 전야미대에 생명을 부어주는 거창한 투쟁에 함께 참가한 심정으로 동대원구역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김은심도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실비와 물자들을 기증하여 공사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였다.

보안부구역장수도원미소 로동자 리희희는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불타는 헌신정신을 찾아가 경제성장을 밀리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뜨거운 열속의 정을 기울이면서 그들을 위훈창조로 고무해 주었다. 불타는 애국심과 공민적자격을 안고 평원군 석교협동농장 작업단장 김주순, 선선시시로수매총합성로동자 김옥순도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사항을 지닌 전진총동력전에서 김정은동지께서 더 높이 발휘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감사문전달모임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신약이 펼쳐이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리마사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령명기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 혁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행령을 전진하는 대전진전부의 장대한 승전포상은 당시 가리키는 최전선에서 돌격구를 열어제끼는 혁명적정군, 건설현장의 주력인 인민군 장병들과 당의 부름에 불붙을 가리키지 않는 전진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적열정과 건원불발의 실천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일심단결의 불가분적위협과 지역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인민의 피사기, 령명기러를 불타는 열의로써 우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영웅적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전국의 지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내었다.

령명기러를 만리마사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파시던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감사문전달모임들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감사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이여 김의도원들이 있었다. 도원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령명기러건설은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전할하고 생존까지 장그려 말할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세뇌작업들을 한 번도 잊지않고 투쟁하기 위한 열렬한 대적전이며 인민의 몸과 피와 리상을 아끼지 않는 사회주의적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지역자강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이 만리마대진군은 우리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적열정을 발휘하여 세기를 추월하는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보람찬 진군이다.

한 모든것을 전할하고 생존까지 장그려 말할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세뇌작업들을 한 번도 잊지않고 투쟁하기 위한 열렬한 대적전이며 인민의 몸과 피와 리상을 아끼지 않는 사회주의적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지역자강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이 만리마대진군은 우리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적열정을 발휘하여 세기를 추월하는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보람찬 진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명한 령도따라 혁명적투쟁에서 승리적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것처럼 만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시기에 김혁의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편지를 받아 안은것으로 하여 올해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5.1절을 맞아 5.1절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축하편지를 제시한 강령적공업건설에 결사분발하여 떨쳐나갔다. -김혁 평남협동농장 2선 공장직장에서- 본사기자 김경훈 찍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감사문전달모임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김경훈 찍음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품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해나가는 내 조국땅에 5.1절이 왔다. 전세계 근로자들이 단결의 구조를 들고 자기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이날을 기념해오는지 도 특수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전리마선구자의 노래

전리마선구자의 노래는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전리마선구자의 노래는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경동의 년대들을 전감시킨 투쟁의 진군가

경동의 년대들을 전감시킨 투쟁의 진군가는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만리마기수

우리는 만리마기수는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연구소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 있다. -평양노동농업과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신홍혁 찍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모범로동자들에 대한 첫 표창식

모범로동자들에 대한 첫 표창식은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은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40년의 5.1절을 안도한 처장즈루근 밀령속에서 맞이하던 때였다.

우리는 근 10년간을 두고 전세계 노동계급의 평결인 5.1절을 간고한 투쟁투쟁을 하는 속에서 기념하면서도 간혹 유격대식(연희)를 베풀어 준 듯 있었지만 어쨌든 이날에 끌어본적은 없었다.

다만 5.1절은 나의 기억에서 희미하나 1940년 5.1절의 이날은 나의 기억속에서 항상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의 5.1절은 식량과 소금까지 떨어진 어려운 형편에서 맞이하였다. 지공총투쟁은 단결의 경우를 생각하여 자기 배양에 조금 남겨두었던 반근 강령의 강령이 불충분하여 군용장비를 넣고 록 퍼져서 있었다. 불을 많이 두고 싶었지만 퍼져도 퍼져도 퍼지는 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었지만 큰 상하여 모두 헌신당하여 퍼지지 않았다. 지공총투쟁은 우선 김일성동지께서 식사하시기를 권하였다. 대안들은 그대로 강령이 불충분하였는데도 그나마 나누어먹었다. 그이께서는 조금도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들어 있는 동무들도 있는데 그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시오. 나야 성한 몸이 아니요.》라고 하시면서 분배 사형하였다.

당시 우리 부대에는 김홍수동무를 비롯하여 나이던 5명의 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쿠키한 사람에게 감복되어 군이 사형당해서 그에게서 감수시켜야 한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어찌할수 없었다. 김홍수동무와 다른 환자들은 그 강령이 한사람을 나눠먹고 병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근로자들처럼 최후의 희생의 희생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해나가는 데 5.1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땅 그 어디를 둘러보라.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넘쳐나는 곳마다 5.1절을 기념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남마다 세상의 시작과 더불어 장흥하게 율리러지는 《애국가》!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통치된 역권 뜻 은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정원인 5.1절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시각 새민주조선에 대한 다함없는 충가로 태어나 정장 70년세월 주체조선의 기상과 조선인민의 애국적열정을 온 누비에 과시하며 끝없이 율리러져 《애국가》의 구절구절이 우리 천만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율리러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은 집체위원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전진해온 내 조국의 역사가 그대로 백두의 기상을 안고 혁명고 전설에서 무수히 기적과 위훈만을 펼쳐서 보좌한 근로의 역사이며 진리로 통치된 역사의 찬란한 역사를 앞서나가려는 창조와 변혁의 빛나는 역사이기 때문 이다.

헤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5월이고 헤마다 경축하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정원인인 5월 1일이다.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진기틀을 대연영기로 이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율리의 5.1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와 변혁의 빛나는 역사이기 때문 이다.

우리의 눈앞에 잊지 못할 화북이 승업히 떠오른다. 몇해전 5월 1일 보천부분 근로자들

의 체육경기를 불소 보아주시는 자리에서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필을 뜻깊게 맞이한 집체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말 보내주시길 권하는 원수님!

은 나라의 일리와 가정마다 크나큰 감격과 기쁨, 격정과 환희가 새차게 끝내지 않는 화려한 기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불바람이 새차게 휘몰아치는 내 조국방 어디서나 뜻깊은 5.1절을 맞이해 무릉과 열정의 노래 소리가 끝없이 율리러지고있다.

들어가보던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진 창조와 번영의 금치없는 역사는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근로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와 자애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근로하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석수 솟아지는 막강과 눈비내리는 포진길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현저지도의 깃을 끌어들이 이이까지로 찾았는 곳마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기쁨은 손과 손은 손을 흔들림이 장아주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그들의 수고를 값있게 헤아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대에 함남의 근로자들을 찾고 또 찾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등마루를 열어주시고 힘없는 불상이 온 나라에 타면지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그 자욱자욱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고조건군의 앞장서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기적과 전염을 이룩한 함남의 로혁건설과 더불어, 기술자들의 투쟁성과 눈

이 평가하시어 그들을 영양에 초창해주시는 최상의 믿음과 하늘같은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정녕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집체위원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 기적과 현신의 자랑찬 역사, 선군조선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원천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원동력인것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표를 집행하기 위한 전민 총출력이 힘있게 벌어지는 각동적인 시기에 5.1절을 맞이한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신도 한문의 집체위원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고 창조와 번영의 원수를 내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적과 현신의 노래 드는 창조와 번영의 영웅으로 선군조선의 공로사로 자라나고 당당한 우주강국, 혁명국의 공민으로 자랑떨치고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기에 근로의 정진과 힘으로 온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힘찬의 드는 열의와 기세는 5월의 찬양이 더욱더 율리러지고 이 땅에 는 어지 않아 세상이 부러워할 사회주의 강국의 찬란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위대한 영도 자 집정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은 민족강국을 키우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며 교육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떼놓고 갈 수 없는 혁명적업무를 키워주는 열매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교육사업은 민족강국을 키우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며 교육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떼놓고 갈 수 없는 혁명적업무를 키워주는 열매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 가장 역시 모두가 김해공업총합대학 학생들였고 또한 모두가 교육자들이였다. 소학교시절에 벌써 소설을 써 내어 사람들을 잠적 놀라게 했던 김민우동무는 공부는 물론 그 무엇이 다 막힘이 없는 다재다능한 인재였다. 과학자, 작가, 작곡가, 축구 선수... 그의 희망은 남도 높여야 했다. 그의 희망은 그가 김해공업총합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대학교 단에 서게 된다는 것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전두환민중혁명대학에서 교원으로 10년간 근무하였다. 어린시절부터 그가 아버지에게서 몇몇처럼 들으며 지났던 현실의 천이백지가 되시며 활력을 찾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기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학

본사기자 리 남 호

과학농사열풍으로 만풍년을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영도 자 집정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적업무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을 들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정원인 5.1절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시각 새민주조선에 대한 다함없는 충가로 태어나 정장 70년세월 주체조선의 기상과 조선인민의 애국적열정을 온 누비에 과시하며 끝없이 율리러져 《애국가》의 구절구절이 우리 천만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율리러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은 집체위원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전진해온 내 조국의 역사가 그대로 백두의 기상을 안고 혁명고 전설에서 무수히 기적과 위훈만을 펼쳐서 보좌한 근로의 역사이며 진리로 통치된 역사의 찬란한 역사를 앞서나가려는 창조와 변혁의 빛나는 역사이기 때문 이다.

헤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5월이고 헤마다 경축하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정원인인 5월 1일이다.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진기틀을 대연영기로 이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율리의 5.1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와 변혁의 빛나는 역사이기 때문 이다.

우리의 눈앞에 잊지 못할 화북이 승업히 떠오른다. 몇해전 5월 1일 보천부분 근로자들

의 체육경기를 불소 보아주시는 자리에서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필을 뜻깊게 맞이한 집체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말 보내주시길 권하는 원수님!

은 나라의 일리와 가정마다 크나큰 감격과 기쁨, 격정과 환희가 새차게 끝내지 않는 화려한 기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불바람이 새차게 휘몰아치는 내 조국방 어디서나 뜻깊은 5.1절을 맞이해 무릉과 열정의 노래 소리가 끝없이 율리러지고있다.

들어가보던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진 창조와 번영의 금치없는 역사는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근로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와 자애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근로하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석수 솟아지는 막강과 눈비내리는 포진길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현저지도의 깃을 끌어들이 이이까지로 찾았는 곳마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기쁨은 손과 손은 손을 흔들림이 장아주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그들의 수고를 값있게 헤아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대에 함남의 근로자들을 찾고 또 찾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등마루를 열어주시고 힘없는 불상이 온 나라에 타면지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그 자욱자욱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고조건군의 앞장서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기적과 전염을 이룩한 함남의 로혁건설과 더불어, 기술자들의 투쟁성과 눈

이 평가하시어 그들을 영양에 초창해주시는 최상의 믿음과 하늘같은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정녕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집체위원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 기적과 현신의 자랑찬 역사, 선군조선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원천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원동력인것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표를 집행하기 위한 전민 총출력이 힘있게 벌어지는 각동적인 시기에 5.1절을 맞이한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신도 한문의 집체위원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고 창조와 번영의 원수를 내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적과 현신의 노래 드는 창조와 번영의 영웅으로 선군조선의 공로사로 자라나고 당당한 우주강국, 혁명국의 공민으로 자랑떨치고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기에 근로의 정진과 힘으로 온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힘찬의 드는 열의와 기세는 5월의 찬양이 더욱더 율리러지고 이 땅에 는 어지 않아 세상이 부러워할 사회주의 강국의 찬란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로동당시대의 갈피에 빛나는 위훈의 자욱

천리마시대를 빛내인 영웅소대

주제 63(1974)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공업 대위에서 통양생산의 7로목과 기소대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은 영웅소대일뿐 아니라 봉산주의 소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게 되시었다.

그들이 일련단시 당을 받들어 충정으로 수놓아온 나날은 300m나 높았던 마천령마루와 함께 오늘날 단산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율리러진다. 그들은 《하나를 전제를 위하여, 전제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들이 애써 마련한 좋은 제곡장용을 여덟이나 다른 단위에 넘겨주고 소대의 핵심들을 다른 단위에 보내주면서 뒤떨어질

수송혁명 200일전투의 나날에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은 오늘도 수송혁명 200일전투의 나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전당적, 전국가적인 관심속에 진행된 수송혁명 200일전투기간 우리의 미어난 수송선사들은 단연-검력사이의 철도

자력갱생의 자랑찬 결실

자력갱생으로 수놓아온 로동 당시대의 갈피에는 80년대속 도창조운동의 불길들이 1만프레스를 만들어낸 풍성로동계급의 위훈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기계공업과 전 만개 인민경제를 새로울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풍성의 로동계급은 1만프레스를 1년 남짓한 기간에 만들어 당장전 40대에 총정의 로혁건설을 드리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인사는 이러한 사실 을 놓고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세인을 경탄시키는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조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집일성주적의 현명한 영도밑에

수송혁명 200일전투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오늘날 대중들의 기적소리를 높이 율리 며 그리고 또 달리는 철도운수 부문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때때두고 있다. 주체의 기치밑에 통일변혁하는 조선이야말로 사회주의시장 혁명이다. 조선은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제마미우에서 솟아난 기적적인 나라, 자주적 이고 강대한 민족경제를 가진 위대한 나라이며 놀라운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나라이다. 실로 조선인민은 자기 수명의 현명한 영도밑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조국의 번영을 떨치고있는 용감하고 근면한 인민이다.》

언제나 마지막 땅을 받들어 할 근간을 가는 믿음직한 집일성-집일열로동계급이 있어 이 땅에서는 창조와 번영의 노래 소리가 더 힘있게 율리러지고있다. 본사기자 신 현 규

위대한 영도 자 집정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은 민족강국을 키우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며 교육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떼놓고 갈 수 없는 혁명적업무를 키워주는 열매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교육사업은 민족강국을 키우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며 교육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떼놓고 갈 수 없는 혁명적업무를 키워주는 열매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교육사업은 민족강국을 키우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며 교육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떼놓고 갈 수 없는 혁명적업무를 키워주는 열매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애국가》의 구절구절이 우리 천만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율리러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은 집체위원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전진해온 내 조국의 역사가 그대로 백두의 기상을 안고 혁명고 전설에서 무수히 기적과 위훈만을 펼쳐서 보좌한 근로의 역사이며 진리로 통치된 역사의 찬란한 역사를 앞서나가려는 창조와 변혁의 빛나는 역사이기 때문 이다.

헤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5월이고 헤마다 경축하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정원인인 5월 1일이다.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진기틀을 대연영기로 이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율리의 5.1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와 변혁의 빛나는 역사이기 때문 이다.

우리의 눈앞에 잊지 못할 화북이 승업히 떠오른다. 몇해전 5월 1일 보천부분 근로자들

의 체육경기를 불소 보아주시는 자리에서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필을 뜻깊게 맞이한 집체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말 보내주시길 권하는 원수님!

교육자가정의 재부

김해공업총합대학 동력공학부 강진장 김민우동무의 가정

늘 제자들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 교실에서 추억을 더듬는 인생의 행복으로 간직하고 사는 그 모습은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존대하 여 불러주신 선성님이라는 세 글자를 김민우동무의 가슴속 가 장 깊게 새겨주었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제대군인학생들앞에서 웃을 참 으로 화랑 적인 빛의 강의를 듣 게 떠올리며 그는 강의할 때 의 몸가짐이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어 추억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바사가 되었지만, 재능과 소질을 받음 때마다 그토록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김진장동무는 부모를

이 집은 길에 자기의 자욱도 새 기리라 마음다웠다. 교단에 처음으로 나서면 날 눈앞에 제일 먼저 떠오른것은 마음속에 거울처럼 간직된 부모의 모습이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학업은 시월엔 치마주를 한 번 번번히 다녀올게 없이 바쁜 어머니를 보면서 비으면 어머니 분이 유산하고 달려오면 다른 동무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철든 오늘날엔 나도 어머니처럼 교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 다.》

선생님이 오면 김해공 업총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에 자랑과 함께는 그들의 집은 수많은 제자들로 풍성 인다. 제자들이 한평생을 두고 추억할 우리 선성님으로 사는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하는 그들의 제일의 행복은 긍지와 보람은 자신이 자랑 분으로 기꺼이 마쳐 조국의 기 동강들을 키우는것이다. 그 하 나하나의 기록에 바친 사랑과 눈물, 탐과 정에 대한 추억은 당 의 핵미탄치는 그의 가슴에 어 제도 그로웠지만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새겨져있다.

나라의 재부중의 재부이신 내세 의 김민우동무대를 이어 사는 소중 한 그 자부심이야말로 교육자 정 의 값높은 재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조 영 현

자력자강으로 혁명신화를 안아온 자랑찬 승리의 화폭



